



徐廷旭(과학기술처 차관)

「정보화사회」가 創刊 4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情報通信産業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나라마다 이의 진흥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사회가 情報化되고 온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수준과 이용환경면에서 볼 때 아직 우리는 정보화의 초기단계에 있고, 사회제도나 생활문화면에서 사전에 평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기계, 전자, 철강, 석유화학, 조선등 工業化의 주역들이 고도성장 단계를 거쳐 발전의 한계에 이른 다음에는 문명의 이기인 뉴미디어가 사회의 주역으로서 情報化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신, 전화와 같은 기본전기통신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목표가 달성된 이상 우리는 이러한 뉴미디어를 사회전반에 보급, 情報文化先進國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보 리터러시 제고를..

뉴미디어는 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가정에까지 확산돼 사회 각계각층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電氣通信 이용자들이 이에 무관심하면 情報化社會의 문맹인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들므로 「정보화사회」는 사회대중의 정보 리터러시(Literacy)를 제고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터러시란 원래 읽고 쓰는 인간생활의 기초정보능력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뉴미디어의 원리를 이해·조작할 수 있고, 뉴미디어의 기능을 알고 도구로서 응용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논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電氣通信事業法을 비롯하여 관련제도를 혁신하는 등으로 CATV, DBS, VAN, ISDN등 뉴미디어서비스의 수용환경이 폭넓게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나쳐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어두운 면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사회」는 이러한 측면까지도 고려, 뉴미디어의 大衆化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